



사고 교정 클리닉

KAOS

프롤로그 : 왜 해설을 이해해도 또 틀릴까

시험장을 나온 당신은 익숙한 도돌이표를 마주한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지문을 읽었다.

선택지를 내려가다 한 번에 손이 가는 번호를 골랐다.

내 판단에 의심은 없었다.

하지만 채점 결과는 오답이다.

허탈한 마음으로 해설지를 펼쳐 읽는다.

문장들이 명쾌하게 읽히고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아, 지문의 이 구절과 선지의 저 단어가 이렇게 어긋났던 거구나.

내가 덜렁땡네.”

그리고 다음 시험.

비슷한 구조의 지문과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에 힘을 주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또다시 똑같은 오답 번호로 손가락이 움직인다.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히 해설을 이해했고 왜 틀렸는지도 정확히 알았는데, 왜 실전에서는 똑같은 궤적으로 다시 무너질까.

결과를 설명하는 해설지, 과정을 지배하는 무의식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어 공부는 "내가 왜 틀렸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해설지를 분석하며, 비슷한 문제를 더 많이 푼다. 이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틀린 답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르지 않는다. 그 찰나의 순간에는 저마다의 명확하고 단단한 이유가 있었다.

“지문에서 방금 읽은 표현과 완전히 똑같아서.”

“문맥 흐름상 이 결론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일상적인 상식과 논리로 볼 때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서.”

그 순간만큼은

내 눈에 그 오답 선지가 충분히, 아니 완벽하게 정답처럼 맞아 보였다.

문제의 진짜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틀렸는가’는 이미 지나간 결과를 설명한다.

해설지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반면 ‘왜 그 오답 선지가 맞아 보였는가’는

실전에서 내 손가락이 움직였던 판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

해설지를 백날 읽어도 실전에서 또 틀리는 이유는,

해설지가 과정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장에 들어가 긴장된 환경을 마주하면, 내 머릿속은 해설지의 차가운 팩트를 기억해 내기 전에 과거에 반복해 왔던 그 ‘그럴듯한 느낌’과 ‘나쁜 사고 버릇’을 가장 먼저 꺼내어 쓴다. 내 판단의 과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해설지를 아무리 이해해도 시험장의 모습은 그대로다.

내 눈을 속이는 사고 버릇의 실체

수능 국어는 독해력만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시험이 아니다.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보며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느꼈지만, 잔인하게도 그 근거는 지문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 뇌가 익숙함과 조급함에 취해 먼저 만들어버린 ‘무의식적인 착각’에서

온 것이었다.

그 착각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노력의 양에 배신당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어야 한다.

[KAOS 사고 교정 클리닉]은 바로 이 지점을 추적한다. 어느 순간 결론이 먼저 만
들어져 내 눈을 멀게 했는지, 어떤 익숙한 자극이 1:1 대조라는 절대 원칙을 앞서
움직였는지, 왜 매번 같은 함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뉘이는지 분석한다. 단순히 흘
려간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답 유혹에 낚여 손가락을 움직이기
직전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실시간으로 해부한다.

익숙한 타협을 거부하는 훈련의 시작점

이 책은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눈을 속이고 판단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8가지 사고
오류 패턴을 분류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겨냥하는
평가원의 5대 출제 함정의 원리를 담았다.

솔직히 말하겠다. 이 책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 성적이 곧바로 수직 상
승하지는 않는다. 내 사고 버릇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전 시험장의 압박 속에서
그 버릇을 실제로 제어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내 무의식의 관성을 바꾸려면 지독하고 의도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똑같은 단어의 유혹과 매끄러운 함정 앞에서도 내 뇌의 폭주를 강제로 진압하고, 약속된 차가운 대조 규칙대로 반응하는 감각이 몸에 완전히 익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처절한 행동 교정 훈련의 절대적인 시작점이다.

실전 시험장에서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눈이 멀어 오답을 고르는지, 그 실체를 사상 처음으로 투명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내일 아침 시험지 앞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유일한 목표다.

[학부모 관찰 가이드]

아이가 모의고사가 끝난 뒤 오답 노트를 열심히 정리하고, 인강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아, 맞다. 이거 다 아는 건데 틀렸네. 다음엔 실수 안 해야지”라며 자책하나요? 성실하게 오답을 분석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서는 ‘다음엔 잘하겠지’ 하고 믿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해설지를 보고 아는 내용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시험이 끝난 뒤에나 가능한 ‘사후적인 감상’일 뿐입니다. 정작 실전 시험장에서는 그 해설지가 머릿속에 로딩되기도 전에, 아이가 지난 수년간 반복해 온 ‘그

럴듯한 느낌'과 '나쁜 사고 버릇'이 뇌를 먼저 장악해 버립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왜 틀렸는가'라는 결과를 받아 적는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왜 시험장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오답이 정답처럼 맞아 보였는가?"라는 판단 과정을 추적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책의 머리말을 함께 읽으며,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양치기 공부의 늪에서 벗어나 실전에서 내 눈을 속이는 사고 오류의 실체를 직시하는 첫걸음을 뚝 수 있도록 단단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상)

1부 — 시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10

1장 결론은 언제 먼저 만들어지는가

2장 왜 N수생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릴까

3장 국어는 독해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2부 — 반복적으로 틀리는 8가지 사고 패턴.....31

4장 E101 단어사냥형: "지문에서 본 것 같은데?"

5장 E102 전부중요형: 읽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학생들

6장 E201 기억과부하형: 앞내용 붙잡다가 지금 문장을 놓치는 학생들

7장 E202 내가알아형: "이 개념 아는데?"

8장 E203 예측선행형: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방향부터 예상하는 학생들

9장 E204 완벽확신형: 한 번 확신하면 수정이 어려운 학생들

10장 E301 소설가형: 지문 밖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학생들

11장 E302 내답맞아형: 틀린 걸 알아도 답을 못 바꾸는 학생들

상

[내부 오류편]

1부

시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장

결론은 언제 먼저 만들어지는가

시험장에서 이런 순간이 있다.

선지를 읽고 있다.

3번 선지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방금 지나친 2번 선지에서 뭔가 묘하게 걸렸다.

“어? 이거 지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답 아닌가?”

그 느낌이 스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4번과 5번 선지를 공정하게 읽지 않는다.

2번이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찾아내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4번을 읽어도 이미 2번 쪽으로 기울어진 눈으로 읽고, 5번을 읽으며 2번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반박 이유를 찾지 못하면 결국 2번을 마킹한다.

이 경험이 결코 낯설지 않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라.

판단은 선지 앞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자신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모두 차분하게 읽고 나서 비로소 냉정하게 정답을 판단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

판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선택지를 읽는 도중에, 선택지를 보기 전에, 심지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에 이미 뇌의 무게중심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어떤 학생은 지문에서 눈에 익은 표현을 발견하는 그 찰나에 뇌가 먼저 반응한다.

“이 단어, 아까 지문 밑줄 근처에서 봤어.”

그 순간부터 읽기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임을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눈동자가 움직인다.

어떤 학생은 지문의 전개 흐름이 상식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순간,

채 읽지도 않은 다음 내용을 예측하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이면 결국 뒤에는 이 결론이 나오겠네.”

그 설부른 예측이 선택지를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판결을 내려버린다.

어떤 학생은 선택지를 보는 순간 문장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 매끄러운 느낌이 생기는 순간,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팩트를 검증하려던 치열한 기어가 멈춰버린다.

이 세 가지 현상의 본질은 같다.

정답을 골라내야 하는 실전 시험장에서,
이미 내 손으로 결론을 먼저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확인 모드’가 켜지는 순간, 눈은 가능성을 차단한다

결론이 먼저 만들어진 뇌는 탐색이 아니라 ‘확인 모드’로 전환된다.

확인 모드에 진입한 읽기는 눈앞에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설령 4번 선지에 명백한 정답의 근거가 인쇄되어 있어도, 이미 2번을 향해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는 4번 문장의 약점과 오답인 이유만 더 크게 보인다.

정답 활자를 눈으로 똑바로 읽으면서도, 내가 방금 마음속으로 찍어둔 틀린 선지

를 정답으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뇌가 텍스트를 왜곡해 수용하는 것이다.

해설지를 백날 암기하고 이해해도 시험장에서 또 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설지는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해설을 읽기 전의 치명적인 순간이 매번 똑같이 반복된다.

내 안에서 결론이 먼저 만들어지는 순간, 그리고 뇌가 확인 모드로 제멋대로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실시간의 판단 과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시험장의 점수는 그대로 멈춰 서 있을 것이다.

내 뇌가 기운 타이밍을 예측하라

그렇다면 결론은 왜 자꾸 먼저 만들어지는가?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익숙한 단어에 정신을 빼앗기는 학생이 있고, 다음 흐름을 성급하게 예측하는 학생이 있으며, 문장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생이 있다.

수험생마다 결론이 먼저 만들어지는 자극의 종류와 방식이 전부 다르다.

이 책은 실전의 긴장된 환경에서 당신의 눈을 멀게 만드는 이 8가지 사고 오류 패턴을 정밀하게 해부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결론이 먼저 만들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작 학생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선지를 다 읽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뇌가 안도감에 속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눈으로 선택지를 훑고 있었을 뿐이다.

내 눈이, 내 판단이 언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학부모 관찰 가이드]

아이가 시험지를 채점한 뒤 “선생님, 저 진짜 2번이랑 4번 중에서 고민하다가 고쳐서 틀렸어요. 다음엔 고치지 말아야겠어요.”라고 말하나요? 부모님 눈에는 아이가 정답의 문턱까지 갔다가 까딱 잘못해서 틀린 아까운 실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두 선지를 대등하게 놓고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번 선지에 눈이 멀어 '확인 모드'로 활자를 왜곡해 읽다가, 마지막 순간에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답을 짜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치지 않는 똥고집이 아니라, 애초에 내 뇌가 2번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그 최초의 그 순간을 스스로 잡아내는 눈입니다.

2장

왜 N수생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릴까

N수를 결심할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

“작년엔 내 노력이 부족했어. 올해는 무조건 다르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강사로 바꾸고, 두 배 많은 문제를 풀며, 기출문제집을 마르고 닳도록 반복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잔뜩 기대를 품고 모의고사를 보지만, 이내 등 뒤가 서늘해지는 이상한 감각을 마주한다.

작년 수능장에서 나를 주저앉혔던 바로 그 유형, 그 전개 구조에서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간도 충분히 썼고, 해설지도 열심히 분석했다.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틀릴까.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위험해지는 이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문제를 풀면 실력이 쌓여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실전 시험장에서 내 뇌를 움직이는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양치기 공부만 반복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된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틀리던 나쁜 사고 패턴까지 함께 반복하여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문을 읽을 때 전개 흐름이 조금만 익숙해도 다음 내용을 성급하게 예측하며 가속하는 버릇이 있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이 문제를 100개, 1,000개 더 풀면 어떻게 될까?

예측하며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완전히 자동화된다.

그 선부른 예측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쉬운 문제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답을 낼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에 걸려 예측이 보기 좋게 빛나가는 실전 문항을 마주하는 순간, 이 학생은 작년보다 더 깊고 잔인하게 덫에 걸려버린다.

이것이 수많은 N수생이 빠지는 잔인한 함정이다.

1년 동안 쌓아 올린 기출 경험과 풀이 속도는 분명히 자산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내가 틀리던 그 지독한 방식도 함께 자라나 완벽하게 자동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강사를 바꾸고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수백 번의 반복으로 굳어진 무의식의 궤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N수생의 경험이 지문을 오염시킨다

더 심각한 누수는 실제 수능장을 겪어본 그 ‘경험 자체’에서 발생한다.

시험지에서 내가 아는 개념이나 작년에 봤던 기출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는 순간, 눈앞의 지문 텍스트보다 내 머릿속 과거 기억이 먼저 튀어나와 뇌를 장악한다.

“이 내용 작년에 공부했던 거야.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 안도감이 밀려오는 찰나,

지문에 적힌 차가운 활자를 있는 그대로 판독하려던 검증 기어는 완전히 멈춘다.

오히려 배경지식이 적어 지문에 활자 그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역 수험생들은 이 오류에 잘 걸리지 않는다. 반면 쌓인 경험이 너무 많은 N수생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경험이 눈앞의 지문을 주관으로 오염시켜 버린다.

“분명히 지문을 똑바로 읽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N수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억울한 하소연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읽기는 읽었다.

하지만 내 과거 경험이 올해의 판단을 앞질러

눈을 멀게 한 상태에서 읽었을 뿐이다.

실패의 기록을 가장 정교한 무기로 바꾸는 법

그렇다면 이 끔찍한 대물림을 올해 안에는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역설적이게도 답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그 실패의 흔적에 있다.

N수생의 오답 데이터는

현역 수험생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이다.

현역들은 모의고사 몇 번, 기출 풀이 몇 회가 전부라 자신의 사고 패턴을 추출할 데이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수능을 치른 횟수만큼, 모의고사에 부딪친 횟수만큼, 내 판

단이 왜곡되었던 오답 데이터가 고스란히 쌓여있다.

한 번 틀린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평소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며 같은 유형에서 세 번 이상 틀렸다면 그것은 확연한 ‘패턴’이다. 그리고 다섯 번 이상 반복되었다면 실전 시험장에서도 예외 없이 튀어나올 ‘자동화된 반응’이다.

당장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둔 작년의 시험지들을 꺼내라.

거기에 당신의 뇌가 어떤 순간에 눈이 멀어 무너졌는지 그 비밀이 전부 들어있다.

같은 전개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낫였는가?

특정 함정 선지만 나오면 자석처럼 끌려갔는가?

이 오답 데이터들을 KAOS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해부하는 순간, 실패의 기록은 올해 수능장에서 내 뇌의 폭주를 완벽하게 막아낼 가장 정교한 진단 도구이자 방어벽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내 무의식적 패턴이 올해도 그대로라면

수능장의 결과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 관찰 가이드]

“우리 아이는 작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알아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더라고요. 기특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안심하고 계시나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아이가 틀리는 나쁜 버릇을 더 강고하고 빠르게 다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N수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올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아이가 하루에 몇 문제를 풀었는가’가 아닙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오답의 흔적들을 용기 있게 꺼내어, 자신의 사고 오류 패턴을 대면하고 인정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올해 또 반복될 오답의 순간을 미연에 통제하는 것만이, 잔인한 재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3장

국어는 독해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어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에게
주변에서는 흔히 이런 조언을 건넨다.

“네가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래.”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어휘력부터 늘려라.”

그 말을 믿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두꺼운 어휘집을 외우며,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량을 늘리는 데 쏟아부어 본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실전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점수는 늘 제자리걸음이다.

왜일까?

정말로 독해력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물론 지문의 글자 자체를 읽어내지 못할 만큼 독해력이 약해서 틀리는 학생도 존
재한다.

하지만 유독 ‘수학은 안정적인 1등급인데, 국어만 보면 3등급 높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이 학생들은 결코 독해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수학 성적이 그들의 치열한 논리력을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고,

복잡한 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직 '국어 시험지'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진다.

시험장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4단계 사고 회로

실전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뇌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

지문을 마주한 순간부터 마킹을 마치는 찰나까지,

다음의 4가지 단계가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1단계 : 정보 선택

(지문의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결가지인지 선별하는 단계)

2단계 : 의미 해석

(단어와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

3단계 : 확신 생성

(선택지를 읽으며 정답과 오답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확신을 만들어내는 단계)

4단계 : 판단 유지

(한번 내린 판단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인지, 찝찝함을 느끼고 수정할 것인지 결정)

하는 단계)

이 4가지 사고 회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수험생은 각각의 단계마다 존재하는 전혀 다른 구멍에서 무너질 수 있다.

시중에서 말하는 ‘독해력 훈련’은 오직 1단계(정보 선택)와 2단계(의미 해석)에만 관여한다. 지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상위권 수험생들이 수능장에서 결정적으로 피를 흘리는 지점은, 지문을 읽는 전반전이 아니라 선택지를 판결하는 후반전, 즉 3단계(확신 생성)와 4단계(판단 유지)에 있다. 지문을 아무리 완벽하게 읽어냈어도 선택지 앞에서 엉뚱하게 확신이 만들어지거나, 오답 선지의 매력적인 단어에 낚여 판단이 너무 일찍 고정되거나, 명백한 함정을 보고도 고집을 부리며 판단을 수정하지 못하면 결국 틀리는 것이다.

지문을 잘 읽는 것과 정답을 맞히는 것은 다르다

다시 말해, 지문을 제대로 읽었어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지문을 머릿속에 텍스트로 입력하는 과정과, 눈앞의 선택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결하는 과정은 뇌가 전혀 다른 영역을 쓰는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왜 강남의 유명한 독해력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수없이 회독해도 내 성적이 멈춰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문을 더 잘 읽는 훈련은 1단계와 2단계만 끝없이 강화할 뿐이다.

선택지 앞에서 내 눈을 멀게 만드는 3단계와 4단계를 방치해 둔다면 백날 지문을 아름답게 읽어봤자 시험장의 결과는 작년과 똑같은 수밖에 없다.

선택지 앞에서 내 확신은 왜 자꾸 잘못 만들어지는가?

내 판단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일찍 고정되어 버리는가?

내 눈을 속인 선택지를 고쳐 잡는 수정은 왜 그토록 어려운가?

이 차가운 질문들이 바로 이 책의 진짜 출발점이다.

수능 국어에서 당신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8가지 사고 오류 패턴은 모두 이 4단계 사고 회로의 틈바구니 속에서 탄생한다.

어떤 오류는 정보를 선별하는 첫 단계부터 뇌를 오염시키고, 어떤 오류는 정답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발동하며, 어떤 오류는 내 판단을 겸손하게 수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작동해 브레이크를 부러뜨린다.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터 같은 수능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시험장에서 내 판단이 어떻게 왜곡되고 고정되는지 그 무의식의 과정을 직시해야만, 성적을 주저앉히는 진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학부모 관찰 가이드]

“우리 아이는 책도 많이 읽고 이해력도 좋은데, 이상하게 국어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만약 이런 안타까움을 품고 계셨다면, 이제 아이의 ‘독해력 부족’을 탓하는 잘못된 처방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이는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정답을 판결해내는 ‘판단 프로토콜’이 무너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부의 방향을 지문 분석에만 맞추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아이가 지문을 읽고 난 뒤, 선택지의 함정을 걸러내고 확신을 통제하는 3, 4단계의 판단 과정에서 어떤 사고 오류를 저지르는지 매서운 눈으로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지문이 아닌 ‘선지 판단 과정’의 교정이 만년 3등급 늪을 탈출하기 위한 해법입니다.